

Roche, 타미플루 원료 생산기업 선정 “아직...”

AI(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제약기업 Roche는 타미플루 원료를 생산·공급할 한국내 제약기업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Roche Korea의 플루어키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e-메일에서 “현재 한국내 4개 우선 협상 대상 제약기업을 상대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최종 선정 날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논의하는데 몇 주일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한국내 최종 타미플루 원료 생산공급기업은 모든 논의가 끝난 뒤 발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oche는 2005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국내 제약기업에 타미플루 원료 생산·공급권한을 주는 서브 라이선스(Sub-License)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내 11개 제약기업이 서브 라이선스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CJ, LG생명과학, 삼천리제약, 유한양행 등 4개 제약기업이 가장 유망한 후보로 Roche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oche는 중국과 인디아의 제약기업에는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3/17>